

도내 생산되는 농산물 식중독균에게서 '안전'

전북농원원 조사 결과 73건 중 1건에서 식품기준 초과

전북에서 생산되는 채소류와 GAP 인증 농산물이 각종 세균에 오염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원원)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한 GAP 농산물 공급을 위한 전북지역 생산단계 농산물 식중독균 오염여부 실태조사 결과 오염수준이 낮아 '안전'하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농원원은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5월부터 11월까지 다소비 생식 채소류, 지하수나 하천수를 이용해 재배하는 채소류, GAP 인증 농산물을 대상으로 식중독균(7종) 및 노로바이러스 오염여부를 조사했다.

생식 채소류 등 73건을 조사한 결과, 7건(9.6%)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검출되었고 검출된 7건 중 1건(상추)에서 신선편의 식품기준(바실러스 세레우스 1g 당 1,000이하)을 초과해 지자체와 검출 농가에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위생지도도 실시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토양 세균의 일종으로 흙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에서 자주 검출되며, 체내 식중독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105~108 CFU/g 정도로 오염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올해 미국수출 한국산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됨에 따라 도내 팽이버섯 생산농가(3곳)를 대상으로 리스테리아균 오염 여부를 특별 조사한 결과 불검출로 나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농원원은 2003년부터 매년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농산물 중 가열

등 조리과정 없이 생식으로 섭취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병원성미생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제해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의 식중독균 오염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신선편의 식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해당 지자체와 농가 등에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검출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에서 수확 후 과정까지 위생관리 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수경 지원장은 "다변화된 환경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듯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수확 후 취급과정까지 위생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2인승 드론택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도심항공교통 드론택시 비행실증 행사에서 이륙하고 있다.

드론 활용 'SOC 디지털화' 박차

LX, 국토부 도심항공교통 기술 실증행사 참여... 확대 추진 협력
맵 구축 · 활용센터 조성 · UAM 지원 등 한국판 뉴딜 일조 기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경철·LX)가 드론을 활용한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LX는 ▲드론맵 구축 ▲드론활용센터 조성 ▲도심항공교통(UAM) 지원 등을 통한 'SOC 디지털화'로 한국판 뉴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LX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도심항공교통 기술에 관한 실증행사에 참여, 드론배송·택시의 실증 확대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2025년 드론택시 최초 상용화 목표를 포함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한 뒤에 이은 후속 조치로, 인건·영월애 이은 최초 도심 내 중량 실증행사였다.

또한, LX는 드론맵을 통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상도 5cm 이내의 고정밀 드론 영상(정사영상)을 구축·분석해 국토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국토 변화의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위성·항공을 통한 토지정보·생태지도 등 각종 토지정보 갱신은 1~5년이 소요되는 반면 드론맵은 원하는 시기에 고해상도로 구축·갱신이 가능해 국토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LX 드론맵 추진 목표는 2020년 6000km²이나 전담 인력 부족에 따라 8월 기준 목표치 대비 54%(인 3,240km²)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LX는 드론맵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품질 관리·갱신체계 마련, 드론체계 일원화 등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2년 말에 건립 예정인 LX드론 활용센터는 드론체계 일원화를 위한 거점센터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새로 구축될 관제시스템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LX드론맵에 대한 품질관

리도 이취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X는 다양한 민간 분야와 협업하며 공공 분야 드론시장 수요를 발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LX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GIS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LX는 시범지역인 제주도의 농지(구좌읍, 성산읍)를 드론으로 촬영해 고해상도 영상정보를 구축했으며,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업해 고해상도 영상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 재배현황을 정확하게 구축해 가격 변동 폭이 큰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택진 LX 공간정보본부장은 "드론을 활용해 스마트한 국토관리를 물론 공공분야 드론산업 활성화를 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토 인프라 관리시스템을 스마트 디지털 체계로 전환해 국토 및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우수 가업승계농' 선발

농진청, 진안 거주 안지인씨 등 6명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12일 부모세대의 영농활동을 기반으로 농의소득 사업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농식품 가공·체험 가업승계농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를 선발했다. 가업 승계농 우수사례는 2019년부터 3개 분야에서 각 2명씩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선발된 인원은 총 12명이다.

올해 선정된 우수 가업승계농은 ▲기술발전분야 안지인 씨(전북 진안·사진), 윤영진 씨(경북 울진) ▲사업확장분야 조연순 씨(충북 충주), 박성훈 씨(강원 삼척) ▲시장창출분야 허준 씨(전남 화순), 정명재 씨(충남 예산) 등이다.

기술발전분야 안지인 씨는 약용작물인 꾸지뽕의 기능성에 주목해 열매·가지·뿌리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부터 숙취해소음료, 화장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소득 증대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윤영진 씨는 대한민국식품명인(제83호)인 어머니의 전통쌀엿 제조기술을 전수받아 도라지 함량을 높은 명품 도라지조청을 개발하고, 포장디자인을 고급화해 제품 차별화에 노력하

고 있다. 사업확장분야 조연순 씨는 2대째 내려오는 전통장류 제조기술을 이어받아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변화에 맞춰 간편 고추장, 소스형 고기잼 등을 개발하고, 장 담그기 체험 교육을 통해 생산 중심의 가업을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시장창출분야 허준 씨는 떡류, 식품기계, 식문화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떡 가공장의 해썬(HACCP) 인증을 받는 등 안전한 식품생산과 신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하트와 별모양의 떡볶이 떡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특허출원 및 등록을 마쳤다. 정명재 씨는 된장·고추장 등 5개 제품을 생산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았다. 매운맛에 민감한 어린이와 외국인 입맛에 맞는 덜 짜고 덜 매운 토마토고추장, 사과고추장 등을 개발해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고 베트남, 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가업승계농은 오는 26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농촌자원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시상하



고, 농촌진흥청장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가업승계농이 겪는 가족경영의 갈등관리 해소와 기업 특성에 맞는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자원과 박정화 과장은 "가업승계농이 단순히 대(代)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이가 아니라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은행 전주완주지부(지부장 홍중기)는 12일 전주 시내버스 이용자를 위한 시민들을 위해 시내버스 마스크 나눔에 비치할 KF94 마스크 5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을 위한 방역 마스크

농협은행 전주완주지부, 나눔함 비치용 마스크 지원

농협은행 전주완주지부(지부장 홍중기)는 12일 전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내버스 마스크 나눔함에 비치할 KF94 마스크 5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

이는 전주 시내버스 내 마스크 나눔함 운영에 동참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범농협 차원의 사회 공헌활동이다.

농협은행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

원금 기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 등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농협은행 홍중기 지부장은 "전주시 코로나19 예방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시민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주니어숙' 나눔 전달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1일 전주시 금당동에 위치한 전북은행 본점에서 여성청소년 청결용품 지원사업 '주니어숙 나눔'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김진호 부행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영숙 사무처장,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황의옥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2차 성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주니어숙 나눔'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10여명이 지원물품을 정성스럽게 손수 포장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김진호 부행장은 "말에 전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한 지원물품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여파 중기 제품 공공구매 촉진

전북중기청, 전주시 외 도내 공공기관 대상 제도 설명회

전북중기청(청장 안남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설명회를 소규모 그룹별로 1차는 혁신도시 및 전주시 소재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난 29일(목)에, 2차는 전주시 외 전북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전북조달청 및 중기중앙회 전북지역 본부가 협업하여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구매 및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공공구매 조달 시 구매·계약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공공구매 제도" 및 "혁신시제품 공공조달제도" 등의 교육으로 구성됐고, 기술개발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전북지역 성능 인증업체 및 혁신시제품 지정업체의 제품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시장 규모(2019년 기준)는 연간 135조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105조원으로 총 구매액의 77.8%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지역 33개 공공기관의 구매총액은 4조4,0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우리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4조원(89.9%)으로 전국 평균(77.8%)에 비해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중기제품 공공구매에 적극 동참해,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며, 참석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태평양 '시서유도시설물' · 한삼코라 '물탱크'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도내 업체 주식회사 태평양과 한삼코라(주)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는 지정된 군산 소재 주식회사 태평양(대표 김태수)의 '현광방지사설을 겸비한 중앙분리대용 발포합성수지 제 시선유도시설물'은 중앙분리대용 차량방호울타리의 뒷면에 설치하며 야간에 반대 차도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아주는 제품으로 특수 소재를 사용해 차량 손실을 방지해주는 특징이 있다.

한삼코라(주)(대표 조민수)의 '회전수류 발생의 원통 웨이브형 STS 물탱크'는 새로운 형태의 웨이브형 물탱크로 콘크리트 내부에 적용되는 기존 물탱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생성과 구조 안정성을 모두 향상시킨 우수한 제품이다. 이주현 청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판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된 업체는 44개사, 56개 제품이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세종 NPS 스마트센터 개소

유연근무제 활성화 기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1일부터 세종시에 '세종 NPS스마트센터'를 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종 NPS스마트센터'는 IT인프라가 완비된 원격근무용 사무실로서 일반 근무지와 동일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출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출장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원거리 근무자에게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도록 지원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축됐다.

새로이 개소한 스마트센터는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사옥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50㎡ 규모다. 8석의 업무 공간, 회의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구비하고 있다. 기존 근무지에서처럼 문서 작성, 결제 등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공단은 스마트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상황에도 원활하게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건물폐쇄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사무공간으로 서울북부 지역본부 NPS스마트센터를 지정해 분산근무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우수한 IT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비상시에도 업무단절을 극복하고, 업무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등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영명의 의심되면 '1339'로